별난 순 별난 순장님 - 김명현 순장

다친 다리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다른 쪽 다리도 부러뜨려주시죠” 요즘 순원들의 이런 심한(?) 말에도 김명현 순장(분당6순)은 서운하거나 기분이 상하지 않는다. 그가 다리를 다친 후 분당6순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월 관절내 복합골절로 뼈를 붙이는 수술을 하고 한달간 입원했다.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목발을 의지해 걸어다니며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다치고 깨달은게 많아요.하나님 앞에 찔리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교수로 재직하며, 분주하다는 핑계로 91년부터 해오던 순장을 2년간이나 쉬었다. 그래도 나름대로 세운 ‘신앙의 기본원칙’은 지킨다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순예배, 식기도, 주일예배는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분당 6순장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바쁜데...”라는 말을 속으로 삼키며 난감해하고 있던 때 다리를 다쳤다. 다치고 나니 강의나 세미나 요청이 뜸해졌다. ‘하나님은 부러진 다리를 통해 저를 쉬게 해주셨어요. 순장으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했죠.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자’는 결단도 했구요’

사고에 대한 긍정적인 그의 반응과 믿음의 결단에 순원들이 크게 도전을 받았다. 여성 순원들이 그동안 순예배에 뜸하던 남편을 ‘순장님 병문안 가자’며 순의 울타리로 모았다. 그리고 김명현 순장이 퇴원후에도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순예배에 참석하자 병문안 왔던 남자 성도들이 꼬박 꼬박 참여했다.

‘순장이 저러고도 나오는 데 빠질 만한 핑계가 없다’고 순원들이 말하더라며 웃는다. 김 순장은 유학시절 한 성경공부 모임에서 주님을 만났다. ‘말씀 공부가 날 변화시켰다’며 ‘순예배에서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것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전한다. 김명현 순장이 순을 처음 맡았을 때 분당6순은 외짝믿음가정이 많았다. 그러나 구경희 성도의 남편 최전호 성도를 비롯해 하나 둘 외짝들의 짝이 채워지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해

김 순장은 ‘못난 순장에 멋진 순원의 덕’이라며 계면적어 한다. 분당6순의 부흥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여성도들의 기도의 힘이다. 홍신애 권사를 주축으로 한 QT나눔방과, 문인순 집사가 리더로 있는 성경읽기 모임은 분당6순의 영적인 버팀목이 된다. 그 모임에서 순원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매일 끊이지 않는다.

두번째, 서로를 위한 격려와 하나됨이 있다. 분당6순은 왕초보부터 모태신앙으로 60여년 신앙생활한 성도까지 신앙연륜이 다양하지만 서로가 ‘당신은 목사감’이라며 믿음을 격려하고 칭찬한다. 2주전 7주과정을 마친 최전호 성도는 비록 신앙의 경륜은 짧지만 믿음의 고백이

너무도 순전하고, 이태구 성도는 초신자이지만 제일 열심이 성경공부 예습을 해 모두의 칭찬을 받는다.

셋째, 분당6순에는 각 가정이 변화되고 기도제목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 '난 알콜 중독자였다'고 고백하는 차달수 성도. 인생의 굴곡이 많았지만 하용조 목사를 만나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지금은 대전의 외국인재소자를 위한 사역에 열심이고, 앞집으로 이사온 최전호 성도를 전도해 함께 순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남편을 전도를 위해 기도해온 조영선 성도의 최근 모습은 순원들에게 큰 도전이 된다. 시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져 병수발을 하고 있고, 무용을 하는 딸이 발과 치아를 크게 다쳐 콩쿠르 참석이 어려워졌다. 병원비와 심적인 부담이 여간이 아니었다. 그러나 조성도의 믿음의 기도와 정성에 최근 시아버님이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해 모두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

분당6순에는 실직, 부부관계의 어려움, 자녀 문제 등 어느 가정마다 있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을 통해 우리 순을 가족의식으로 뭉치게 하십니다'고 전한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분당6순은 그가 맡은 순 중 '가장 은혜로운 순이다'라고 고백한다.

김명현 순장은 하나님께서는 다리를 다치는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새로운 것들로 잃은 것을 채워주셨다'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고백한다.

아직은 똑바로 걷지 못하는 김순장. 그러나 믿음안에서 바로 걷게 된 것은 '다친 다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 출처 : 온누리교회**